

2024년 7월 24일(수)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4년 7월 24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담당부서 : 공항기획과 공항운영팀

유 형 : 행사

사진유무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과장

김병권

051-888-4570

팀장

현은희

051-888-4543

담당자

김형수

051-888-4542

부산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방안 찾는다!

- ◆ 7.24. 14:00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팀(TF)」 회의 개최... 시 미래혁신부시장,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에어부산 지역주주, 시민단체 대표, 부산상의 관계자 등 참석해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방안 논의
- ◆ 총괄팀 구성 확대로 이번 회의부터 시의회,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항공사 존치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 논의될 것으로 기대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4일) 오후 2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

- 이번 회의는 시의회, 부산상의, 에어부산 지역주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사 통합 해외심사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김광희 시 미래혁신부시장의 주재하며, 에어부산 지역주주, 김재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시민단체 대표, 부산상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시민단체 대표로는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가 참석한다.
- 특히, 이번 총괄팀(TF) 회의에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시민단체에서 처음으로 참여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항공사 존치를 위한 더욱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는 지난 5월 2일 시·시의회·상공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했던 ‘시정현안 소통간담회’ 후속 조치로, 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총괄팀(TF)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시민단체를 추가했다.

- 김광희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이번 회의는 총괄팀(TF) 구성 확대로 시의회, 시민단체와도 함께 거점항공사 존치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라고 전했다.
- 아울러, “향후 가덕도신공항의 성공 개항 여건 구축을 위한 ‘거점 항공사 존치’라는 지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시는 정부, 산업은행, 대한항공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